

# 한국 현대 치의학의 발전 1946-1969년 논문, 증례보고, 종설 및 학술강연회 연제를 중심으로

<sup>1</sup>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sup>2</sup>대한치과 의사학회 고문

신 유 석<sup>1)</sup>, 신 재 의<sup>2)</sup>

## ABSTRACT

###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Korea

<sup>1</sup>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sup>2</sup>Adviser,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Shin Yooseok D.D.S., M.S.D., Ph.D.<sup>1)</sup>, Shin Jaeui, D.D.S., M.S.D., Ph.D.<sup>2)</sup>

Korean dentist's new mission was extended in dental practice field since the National Liberation Day of Korea. Modern dentistry development were due to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dentistry, the development of Military dentistry, the unified academic activities koreans dental Association and improvement of korean dentist system.

Modern dentistry development factors were as follows,

First, Seoul National University's professors have been sent for studying abroad since May 1954. Thanks to this advanced system, each dental department established branch academy. Researchers and academic activities were increas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 from January 1954, the military started training program to the korean dentists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the korean dentists were sent to the US Army hospital in korea for practical training courses (On the Job Training) so they could get chances to learn the advanced dentistry. During the korean war, the oral surgery dentists enlarged treatments to the maxillofacial field.

Third, korean Dental academy meeting, special lectures and tables clinic from 1947 wer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dentistry in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and skills. Since 1955 "Dentistry(齒學)" with a focus on the translation of foreign literature also developed modern dentistry. Since 1958 the International dental conference could broaden dental knowledge, it also provided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dentistry. On Oct 11, 1962, revise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n Korean Dental academy and korean dental association unified meeting and enhanced the conferences. Improvement of korean dentist system in 1964 unified the dentists as new dentist education. Articles, case reports, review articles and academic meetings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from 1946 to 1969 analyzed to demonstrate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dentistry, The titles and lectur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department and they were organized by topic.

Key words : dentistry, development, studying abroad. On the Job Training, lecture, translation, improvement of a system

Corresponding Author

신재의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71-16

이메일 : allens@kornet.net

## I. 머리말

1922년 10월 15일 한국인 치과의사 유창선(劉昌宣)은 조선치과의학회에서 「진신적 질환의 구강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한국인 치과의사 최초의 논문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sup>.

선학들의 연구 업적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연구 활동을 한다면 중복 없는 체계적인 학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현대 치의학은 환희와 격동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11월 1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경성치과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바뀐 후, 1946년 8월 22일 미군정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립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으로 편입되었다<sup>2)</sup>.

1945년 12월 9일 치과의사는 조선치과의사회를 구성하였고<sup>3)</sup>, 1946년 5월 1일 『조선치계』를 발행하였으며, 조선치과의학회는 1947년 5월 18일 제1회 학술강연회, 1948년 5월 23일 제2회 학술강연회, 1949년 5월 28일 제3회 학술강연회를 비롯하여, 1952년 10월 18, 19일 제4회 학술강연회는 한국전쟁 중에도 개최 되었고, 1969년 10월 5일에는 제21회 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sup>4)</sup>.

1946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 현대 치의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논문, 증례보고, 종설 및 학술강연회 연제를 수집·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

창덕, 『한국치과의사 논문총취』 제1집(1946-1980)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참고하였다. 또한 치의학 발전과정의 흐름을 이어간 경상북도치과의사회지 『치학(齒學)』을 주목하였다<sup>5)</sup>. 1954년 10월 『치학』은 처음 발행되었고, 1969년까지 속간된 경상북도치과의사회지이다. 1954년 12월 『치학(齒學)』의 발행이 새로운 지식으로 치의학의 발전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sup>6)</sup>.

대한치과의학회 학회지도 논문, 증례보고와 종설의 발표의 장이었다. 1954년 11월 30일 대한치과의학회는 『대한치과의학회지』를 발간하였다. 발행 목적은 연구 업적에 대해 학문적 비판을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 하며, 원저 10편, 미8군 치과군의원 강연 2편, 종설 33편 등을 게재하였다.

우리의 자유 국가를 재건하기에 노력한지도 만 9년을 지났고 오로지 우리들의 힘과 성의로 치과의학의 상아탑을 반석 위에 건립하여 연구 발표회를 거듭하기 무릇 6회나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연구 업적을 세계만방에 공표하여 선배 제현들의 학문적 비판을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은 대단히 유감한 일임으로 우리 일천 동지들은 회합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회지 발간을 주창하는 소리가<sup>7)</sup>

그러나 발간은 부진하여 1969년 10월까지 8회에

1) 朝鮮齒科醫學會, 『朝鮮齒科醫學會雜誌』, 1호; 1925. pp. 99-101.

이러한 사실을 모아 저자는 『한국근대치의학사』 (잠윤, 2004) 5장에 일제강점기 「치과의학회 설립과 활동」을 발표한 바가 있다.

2)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제2권, 2002. pp. 62-64.

3) 徐丙瑞, 「8?15後 齒科醫師會의 동향」, 『朝鮮齒界』 창간호, 1946. pp. 87.

조선치과의사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이다.

4)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1982. pp. 50, 238, 265.

제1회부터 14회(1962년)까지는 학술강연회로 불리우다가 15회(1963년)부터는 종합학술대회라 하였다.

5) 이외에도 1957년 8월 대한치과의학회 경남지부에서는 「치의학계」를 발행하였다. 1962년 12월 2일 이후 「치의학계」는 부산시 치과의사회에서 발행하였고, 70년대 초까지 발행하였다.

1959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는 「치과회보」를 발행하였다.

1959년 3월 20일 대한치과의학회 전남지부에서는 「전남치의」를 발행하였다.

6) 최해운, 『치학(齒學)』 서문, 제1권 제3호, 경상북도치과의사회, 1954.

7) 박명진, 『대한치과의학회지』 권두사, 제1권 제1호, 대한치과의사회, 1954.

그쳤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학회지 발간이 요청되었다<sup>8)</sup>. 1969년 10월 6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를 월간으로 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sup>9)</sup>.

우리 치과계의 최근 발전은 임상 및 기초의학에 있어서 괄목할만하다. 치과의사들의 논문발표가 각 의학 잡지에 다수 발표되는 것을 보고 또 최근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회원이 늘어가는 것도 경하할 일이다. (중략) 기구나 제도 혹은 관례적으로 치과의사들의 논문은 협회지에 발표하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도 소망이다. 이와 같이 된다면 절대로 발간이 중단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sup>10)</sup>.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항 할 현대의학과 협의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매월 2,200부를 납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1969년도 11월호(제7권 제2호 통권9호)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지』가 월간으로 발행되었다<sup>11)</sup>. 이 발행은 치의학 논문이 일반의학 잡지에 분산 게재되어 연구결과를 몇몇 회원에게만 소개되고, 회원 간의 학술교류에 부족하다는 점에서 치의학 전문지인 본 『대한치과의사협회지』의 월간 발행은 시대적인 요청일 뿐 아니라 당면 과제의 해결이라 하였다<sup>12)</sup>.

이외에도 본 논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간물 등을 이용하였다.

『치대학술지』, 『서울대학교 논문집(의약계)』, 『부산의대학보』, 『대한치과의학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지』, 『대한치과의사학회지』, 『대한치과보철학회지』, 『대한치과학회구강외과분과학회회보』, 『치과기재학회지』,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조선치계』, 『치학』, 『한국치과공론』, 『치계』, 『치과계』, 『치원』, 『치의계』, 『치과회보』, 『군진치과』, 『군진의학』, 『종합의학』, 『한국의약』, 『의학다이제스트』, 『최신의학』, 『임상의학』, 『중앙의학』, 『현대의학』,

1946-1969년 논문과 증례보고와 증설과 학술강연회 연재를 수집·분석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임상과 기초치 의학을 합하여, 각과로 구분하였고,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특별히 항목이 많은 연재는 따로 항목을 만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현대 치의학의 발전 과정을 발전 요인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II. 현대 치의학의 발전 요인

광복과 함께 치과의사는 사명을 새롭게 하였다. 일제강점기 치과의사는 입치사와 구별 되는 것으로 구강외과의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 1924년 원단에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는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여 치과와 구강과 의원이라고 치과의사인 그의 진료 범위를 광고하고 있었다<sup>13)</sup>. 1946년 5월 한택동은 치과의사 사명의 재인식과 질적 진보 향상을 하기 위하여 치의학의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성하고, 또한 치과의사법을 제정할 것을

8)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80, 대한치과의사협회, 1982, pp. 289.

정관 개정에 따라 학회지에서 제4권 1호부터 협회지가 되었다.

9)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80, pp. 122.

10) 김동순, 『협회지 6권 1호 속간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pp. 130.

11)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80, pp. 122.

12) 서영규, 『협회지 7권 1호 권두언』, 『대한치과의사협회지』 pp. 131.

13) 동아일보, 1924년 원단 광고

咸錫泰 齒科 口腔科 醫院 敢히 時代의 要求에 順應하야 簡單히 紙上으로써 年賀의 禮를 略함

咸錫泰 京城府三角町 一番地 電話(本局) 七九番

주장하였다<sup>14)</sup>. 정용국은 치과의사의 참(진) 사명과 그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치아와 그 주위조직 구강점막 악골 등의 질환과 모든 보철 치료는 이미 임상에서 시행하던 일로써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며, 치아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 장기의 질환과 구강 내외에 발생하는 비치성 질환, 그리고 신체의 건강, 얼굴의 미, 저작, 언어에 관계된 치성, 비치성의 기형을 수술하고 좋은 보철 장치를 제작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할 일이라 주장하였다<sup>15)</sup>.

### 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들의 해외 유학 (1954-1960)

현대 치의학 발전 요인의 하나는 1954년 이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들의 미국 등 해외 유학이었다<sup>16)</sup>. 1954년 5월 11일 차문호, 1954년 8월 15일 이영옥,

1955년 3월 7일-8월 7일 박명진, 1955년 9월 5일 심태석이 도미 유학하였고, 1956년 10월 김용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추천 장학생으로 서독에서 1년간 유학하였다. 1957년 8월 2일 김동순은 선편으로 도미하여 1958년 5월 유학중이던 변중수와 함께 귀국하였다. 1958년 8월 14일 이춘근, 1958년 8월 25일 김주환, 1958년 9월 3일 김수철, 1958년 9월 4일 진용환은 도미 유학하였고, 1959년 7월 귀국하였다. 1959년 8월 10일 김규식, 1960년 1월 18일 선우양국은 도미 유학하였다.

이 미국 유학 교수들은 학교와 학과와 학회를 미국식으로 개선하였다<sup>17)</sup>. 미국은 치과대학의 설립, ADA의 활동, 그리고 전문의제도의 확립에 의해 치의학의 발전시킨 나라의 모범 사례였기 때문이었다<sup>18)</sup>.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은 진료 과목을 분과하였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은 기존의 보존

1950년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들의 해외 유학 현황

성명	직위	연도	유학
차문호	전임강사	1954. 5. 11	미국, 한미재단
이영옥	조교수	1954. 8. 15	미국, 개인
박명진	학장	1955. 3. 7-8. 7	미국교육계시찰
심태석	조교수	1955. 9. 5	미국, 한미재단
김용관	조교수	1956. 10. 31	서독, 서독국비장학생
김동순	부교수	1957. 9. 1	미국, 한미재단
이춘근	교수	1958. 8. 14	미국, 국무성 ICA 원조자금
김주환	전임강사	1958. 8. 25	미국, 국무성 ICA 원조자금
김수철	조교수	1958. 9. 3	미국, 국무성 ICA 원조자금
진용환	대우강사	1958. 9. 4	미국, 국무성 ICA 원조자금
김규식	대우강사	1959. 8. 10	미국, 국무성 ICA 원조자금
선우양국	전임강사	1960. 1. 18	미국, 국무성 ICA 원조자금

\* 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dministration of US Department

14) 한택동, 『조선치계』, 창간호, 1946. pp. 49.

15) 정용국, 『조선치계』, 창간호, 1946. pp. 45.

16)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pp. 79.

17) 김명국, 치과계, 1977. 11, pp. 26-27.

18) 권중규, 「미국 치의학 발달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권 1호, 2001, pp. 44-56.

과, 구강외과, 보철과 3개과에서 1956년 소아치과(보존과에서 분과), 1957년 치주과(제2 보존과로 출발), 1958년 치과방사선실(1963년 구강외과에서 치과방사선과로 독립), 1961년 예진실(후에 구강진단과로 됨), 1965년 교정과 등 8개의 진료과로 분과하였다<sup>19)</sup>.

진료 과목의 분과는 학회의 설립을 가져오게 하였다.

1959년 5월 28일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김귀선  
 1959년 6월 13일 대한치과기초학회 회장 김동순  
 1959년 6월 27일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이유경  
 1959년 6월 30일 대한구강외과학회 회장 이춘근  
 1959년 6월 30일 대한치과방사선학회 회장 안형규  
 1959년 7월 10일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 차문호  
 1959년 9월 16일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 이영옥

1959년 10월 30-31일 추계 학술강연회는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 10월 7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이한수  
 1960년 10월 7일 대한치주과학회 회장 김낙희  
 1962년 10월 4일 대한구강보건학회 회장 김주환  
 1962년 11월 10일 대한악안면성형재건학회 회장 오재인  
 1962년 10월 4일 대한구강해부학회 회장 김규택  
 1963년 1월 22일 대한군진치과학회 회장 정용래

1963년 3월 10일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회장 최재경  
 1963년 9월 13일 대한구강병리학회 회장 김동순  
 1966년 4월 9일 대한치과기재학회 회장 선우양국<sup>20)</sup>

그러나, 이러한 학회들은 독립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1961-1970년대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 주논문 이외에 부논문이 있어야 하였다. 때문에 자연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연구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구 인력 많아지고, 학술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sup>21)</sup>.

치의학의 기초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생물학과 재료 공학적 토대가 임상에 도입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 기술전수를 통한 교육에서, 치의학은 기초와 임상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학문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1950년대 약리학, 해부학, 병리학, 1958년 예방치의학 전임교수가 있었다<sup>22)</sup>. 1960년 해부학, 1964년 치과약리학, 1966년 구강해부학, 1969년 구강생리학과 구강생화학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확보되었다<sup>23)</sup>. 치과의사학은 1949년에도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되었으나 외래교수에 의해 진행되었다<sup>24)</sup>.

## 나. 군진 치의학의 발전

광복과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치과의사가 군에 입대

19)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pp. 45-47.

1941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은 보존부, 외과부, 보철부, 교정부, 특진실, 약국이 있었다.

20)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1982. pp. 195.

21)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pp. 88.

22)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pp. 45-47.

1941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는 기초학에 병리약리학, 병리조직학, 해부학, 기공학, 화학교실이 있었고, 그리고 강사에 이해 강의된 내과, 의법, 외중, 병리, 생리, 해부, 세균, 법의, 의화학, 약물, X선, 수신 과목이 있었다.

23)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pp. 85, 102.

그 외에 구강미생물학 전임교수 발령은 1980년에 이루어졌다.

24)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2002. pp. 69, 84, 94, 99, 101, 111, 115, 128, 132, 135, 167, 171, 175.

1949년에도 의사학 강의는 되어, 김두중과 이영택이 하였고 1964-1998년까지 이한수와 최진환이 강의하였다.

하였다<sup>25)</sup>. 전쟁은 보건의료 부분의 모든 시설을 거의 파괴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1952년 8월 WHO조사단에 보고된 한국전쟁 중의 치과의사 피해상황은 서울 개업의 214명 중 이재율이 80%이며, 행방불명 또는 사망자는 1백명 가량이었다<sup>26)</sup>.

미국의 치의학이 미군을 통해 보급되었다. 1954년 1월 28일부터 60명의 한국군 치과의사가 미국 월터 리드육군병원(Walter Reed Army General Hospital) 등에서 구강외과, 성형외과, 보철과, 타이코늄치계통(Ticonium Denture System), 근관 치료, 치주병학, 일반 치과, 보건정책 과정을 이수하게 했다<sup>27)</sup>.

한국 치과군의관이 미국의 선진적인 의술과 시설을 갖춘 미국 군 치과 업무를 직접적인 수련으로 한국 치의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1954년 2월 5일부터 한국군 치과의사가 미8군 병원에 파견되어 구강외과, 보철과, 치주과, 일반 치과, 치과보조 과정의 실무수련(On the Job Training)을 받게 하였다<sup>28)</sup>.

대한치과의사회는 미군치과군의관을 고문관으로 임명하고, 이들과의 강연, 교육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대 치의학 발전에 공헌하였다<sup>29)</sup>.

1955년 11월 28일 군진치과의사회가 설립되어 1957년 9월 27일에 제1회 군진치과 학술집담회를 개

최하는 등 치과군의관의 학술 향상에 노력하였고, 1959년에 설립된 주한미군의 38선치과학회(38th Parallel Dental Society)의 학술강연, 교육을 통한 최신 의술 및 새로운 기자재를 소개하였다<sup>30)</sup>.

구강외과 영역을 악안면 성형까지 확장시켰다. 전쟁 시에는 악안면 부상자가 많았고, 치아 및 악골의 기능 회복에 치과의사가 정통하였다. 1962년 11월 10일 전쟁 시에 치아 및 악골의 기능회복에 참가했던 치과의사들이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를 설립하였다<sup>31)</sup>.

또한 치과의사의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을 일반화시켰다. 1955년 육군 의무감실에서는 전문 군의관 양성 과 획득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전문군의관이 부족하자 국내 종합병원에서도 치과의사 수련이 일반화되었다<sup>32)</sup>.

#### 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활동

광복 후에는 치과의사 면허 및 등록위원회를 두었으나,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교육을 받지 못한 치과의사들이 그대로 존속하여, 진료수준의 향상이 어려웠다<sup>33)</sup>. 이러한 상태에서 1955년 학년 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남대학교 의과대

25) 치의학과,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육군본부, 1999. pp. 18-36. 1946년 8월 1일 육군치무업무는 치과군의관이 임관되었고, 1949년 2월 2일 제5육군병원에 치과 과장이 임명되었다. 1949년 11월 28일 육군본부 의무감실 의무과 치무계가 창설되었고, 1952년 3월1일 치의장교 병과를 군의에서 치의로 재분류하게 되었고, 1952년 7월 7일 육군본부 의무감실 치무과로 승격되었다.

26) 이주연, 『한국 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해안, 2006. pp. 324.

27) 치의학과,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pp. 466-468.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pp. 84.

28) 치의학과,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pp. 484-485.

29) 김용진, 『치계』, 제1권 제3호, 1967. pp. 10.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pp. 279-280.

1954년, 1955년, 1956년 대한치과의사회 정기 총회에 미군 고문관이 참석하였다.

30) 치의학과,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pp. 47-52.

1963년 1월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군진치과학회를 인준하였다.

31) 치의학과,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pp. 75.

32) 치의학과,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pp. 60-61.

이 제도를 김정렬 국방장관 재임 때 시행하였다고 하여 Kim's Plan이라 부른다.

33) 한택동, 『조선치계』, 창간호, 1946. pp. 65.

학 치의학부에서 학생을 모집하였다.

1955년 4월 23일 대한치과의사회 총회 결의에 의해 1955년 5월 9일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은 치의학 교육과 치과의사 제도 개선의 진정서를 문교부와 보건 사회부에 제출하였다<sup>34)</sup>.

#### 가. 문교부에 진정서를 제출

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치의학부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치의학부를 폐쇄할 것,
2. 치의학 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
3.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육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할 것,

#### 나. 보건사회부에 진정서를 제출

1. 치과의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
2. 치과의사(검정) 시험제도를 폐지할 것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치의학부의 폐쇄 할 이유는 치과대학으로 승격될 경우에 교수부족과 시설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1957년 3월 두 학교 치의학부는 폐쇄되어, 학생들은 대부분 해당학교 의과대학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편입되었다<sup>35)</sup>.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육 연한을 연장은 1959년 1월 13일 대통령 제1430호 치의학 교육연한 개정령으로 1959년 4월 1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치의예과가 설립되어, 치과의사 교육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그 결과 일반 교양과목과 기초적인 전공과목을 이

수하여 치의학 교육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sup>36)</sup>.

이후 1966년 12월 28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과 1967년 12월 4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그 동안 치의학의 성장과 발전에 치의학 교육기관의 수적증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sup>37)</sup>.

1964년 치과의사 검정고시 제도가 폐지되었고, 한지치과의사 면허교부가 각하되면서 치과의사는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로 일원화되었다<sup>38)</sup>.

한국 현대 치의학 발전과정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제회의의 참가와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의 치과계와 소통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 1958년 3월 24일-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5명의 대표단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에 참석하여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59년 9월 12일-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미국 뉴욕에서 52개국의 대표와 약 2,500명에 치과의사가 모인 회의 제47차 세계치과연맹회의(FDI)에 대표단을 참석시키고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FDI 총회와 때를 같이 한 1959년 9월 14일-18일 미국치과의사회 “백년제”에도 참가하여 양국 간의 치의학의 유대를 강화하였다<sup>39)</sup>.

1967년 4월 24-28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5회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APDC)는 국위를 국제적으로 선양하였고, 학술강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sup>40)</sup>.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의 학술강연은 두 가지로 구분되던 단순한 강연과 테이블 클리닉으로 구분되었다. 강연은 4월 25일부터 시작하여 4월 28일에 마쳤다. 모든 연사는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인 인물을 선정되었다.

34)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pp. 77-78.

35)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pp. 77-78.

36)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제2권, 2002, pp. 79.

37) 김귀선, 「좌담 치의학계의 오늘과 내일」, 『치원』 장간호, 1967, pp. 57.

1970년대 치의학 교육기관은 전국 10개교로 늘어났다.

38)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pp. 279.

39)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pp. 92-98.

40)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pp. 113-118.

테이블 클리닉을 4월 27일 오후에 15개 테이블에서 하였다.

4월 25일

occlusal Rehabilitation Including precision Attachments : 정보라

Partial Denture로 인한 치은의 병리적 보고 : F. A Goska

플라스틱 물질에 의한 치아 등의 이식 : 유양수

Successive structural Changes in Both the Gross and Microscopic on the Temporo-Mandibular Joint Following of the occlusion in the Preserved

Anatomical Human Subject : 김명국

A Treatment for Abused Oral Tissues Of Full Denture Patients : K. L. Miller

한국인의 악안면 기형 및 손상에 대한 고찰 : 정순경  
The Conviction of Extractio Under the hypnotic Trance : 김종윤

관상육경피부이식 (tabularpediclegraft) : 이열희

Dental panoramic Radioography : Dr. D. D. Chung , Dr. T. M. Graber

한국육군치과계에 활동에 대하여 : 변석두, 송준화  
4월 26일

Mucobuccal fold Extension : Dr. Collings

한국군에 있어서의 악안면 정형수술 : 민병일

치과질환으로 원인되는 두부와 경부의 경련현상 : Dr. Edmund wong

4월 27일

Practical Orthodontics for the General

practitioner : Jarabak

일반개업의를 위주한 예방교정의 한 방법으로서의 연속발치방법 (Serial Extraction) : Macapanpan

Treatment Class III Malocclusion and Mandibular Prognathism : Young H. Kim

치수의 조직화학과 초미구조물 : 한성수

치아의 pit과 Fissure Resin 접착제를 이용하는 충전 예. : Mitsuharu Takeuchi

충치예방과 불화 제1석 (Stannous Fluoride) : Dr. Kyes

20~27세 한국남자 10977명에 대한 개개치아의 건강도와 치아 우식증의 이환율 : 박기철

외배양성 발육이상(Ectodermal Dysplasia) : 김호원<sup>41)</sup>

1962년 10월 11일 정관의 개정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학회와 합하여 회의 운영을 일원화하여 회의 동력을 강화시켰다. 협회의 학술이사는 분과학회장 중에서 선출되었고, 『대한치과의학회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로 제호를 변경하였다<sup>42)</sup>. 그리고 학술지는 분과학회 별로 발행되었는데<sup>43)</sup>, 1960년 12월 1일 발행된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는 세계 최초의 치과의사학회지로 기록되고 있다<sup>44)</sup>.

종합학술대회 특별 강연과 테이블 크리닉 개최는 최신지식과 기술전수의 장으로 현대 치의학 발전에 공헌하였다<sup>45)</sup>. 연자는 미군 치과군의관과 그 계통의 권위 있는 교수 등이었다. 이것을 과별로 분류하여 보았다.

1962년 (보 존 학) Silicate Preparations

41)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80, pp. 115-116.

42)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80, pp. 289.

43) 최진환, 한국치과잡지사, 치원 3호, 1968. pp. 47.

60년대 발간된 분과별 학술지는 1960년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년 대한치과보철학회보, 1964년 구강해부학회지, 1966년 치과기재학회지, 1967년 대한구강보건학회지가 있다.

44) 이병태, 『치의학 역사산책』, 도서출판 정상, 2001. pp. 161.

45)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80, pp. 79.



Lingual Approach : Ronald Cohen<sup>46)</sup>  
 1968년 (근관치료학) 최근에 있어서 보존치료학의 진보  
 (1) 치수치치에 대해서, (2) 근관치치에 대해서 : 關根永滋<sup>47)</sup>  
 1968년 (근관치료학) 유수만, Occlusal Opening for Root Canal Treatment<sup>48)</sup>,  
 1947년 (보철학) 신세딕 레진과 안면 성형(특히 안구) 응용에 관하여 : G. N. 슐디<sup>49)</sup>  
 1948년 (보철학) 보철학적 안면형성에 관하여 : Elmerhioman<sup>50)</sup>  
 1952년 (보철학) Immediate Full Dentures : Iruing Mender<sup>51)</sup>  
 1959년 (보철학) Controlled Tooth Division : Cecil. W. Vance<sup>52)</sup>  
 (보철학) Esthetic Temporary Anterior Abutment Coverage : Williams A Jennings<sup>53)</sup>  
 (보철학) Preparation and use of Tinker 3/4 Gold Crown in Anterior Bridge : Ronaldk. Miller<sup>54)</sup>

(보철학) 총의치의 중심교합과 도치배열법 : Royl. Bodine Jr. Chang Hyung Kyoo<sup>55)</sup>  
 (보철학) Esthetics in Full Denture Construction : R. A. Smith<sup>56)</sup>.  
 (보철학) Bite Block : Myron Martin<sup>57)</sup>  
 1962년 (보철학) Prosthetic Procedures : Dean H. Stewart<sup>58)</sup>  
 1963년 (보철학) The mouth preparation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 Allyn G. Wagner<sup>59)</sup>  
 1968년 (보철학) Attachment에 의한 2,3 치험례 : 金田義夫<sup>60)</sup>  
 1961년 (치주병학) Diagnosis in periodontia. Har LDS. Elli Dtt<sup>61)</sup>  
 1962년 (치주병학) Muco-Periosteal Flaps & Suture Technique : Frank Mathews<sup>62)</sup>.  
 1961년 (방사선학) Radiolucencies and Radiopacities. Hubert W. Nerchant<sup>63)</sup>  
 1969년 (방사선학) Strahlenexposition und

46) (보존) 62-테-120. Silicate Preparations Lingual Approach : Ronald Cohen

47) (근치) 68-특-3. 최근에 있어서 보존치료학의 진보

(1) 치수치치에 대해서 : (2) 근관치치에 대해서 : 關根永滋

48) (근치) 68-82 : 유수만, Occlusal Opening for Root Canal Treatment, 치계 2 : 9.

49) (보철,0) 47-특-23. 신세딕 레진과 안면 성형(특히 안구) 응용에 관하여 : G. N. 슐디

50) (보철,총) 48-학-23. 보철학적 안면형성에 관하여(환등설명) : Elmerhioman

51) (보철,총) 52-특-14. Immediate Full Dentures : Iruing Mender

52) (보철,0) 59-특-70. Controlled Tooth Division : Cecil. w. Vance

53) (보철,금) 59-테-75. Esthetic Temporary Anterior Abutment Coverage: Williams A Jennings

54) (보철,금) 59-테-77. Preparation and use of Tinker 3/4 Gold Crown in Anterior Bridge : Ronaldk. Miller

55) (보철,총) 59-특-26. 총의치의 중심교합과 도치배열법 : Royl. Bodine Jr. ,Chang Hyung Kyoo

56) (보철,총) 59-특-71. Esthetics in Full Denture Construction : R. A. Smith.

57) (보철,부) 59-테-76. Bite Block : Myron Martin

58) (보철,0) 62-테-119. Prosthetic Procedures : Dean H. Stewart

59) (보철,부) 63-테-141. The mouth preparation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 Allyn G. Wagner

60) (보철,0) 68-특-2. Attachment에 의한 2,3 치험례 : 金田義夫

61) (치주) 61-특-38. Diagnosis in periodontia. Har LDS. Elli Dtt

62) (치주) 62-테-121. Muco-Periosteal Flaps & Suture Technique : Frank Mathews.

63) (영상치의학) 61-특-37. Radiolucencies and Radiopacities. Hubert W. Nerchant

Strahlenschutz bei ber Rontgen – Diagno-  
stik in der Zahn–Mund, und Kieferheil-  
kunde : Eberhard Sonnabend<sup>64)</sup>

1958년 (치아교정학) Orthodontic Treated  
Cases : S. Wallace Bell<sup>65)</sup>

1947년 (구강외과학) 구강외과 문제에 관하여 : H.  
M. 테일러<sup>66)</sup>

1948년 (구강외과학) 구강외과 문제에 관하여 :  
Iloward Maylor<sup>67)</sup>

1952년 (구강외과학) Exodontia : William  
Begelowr<sup>68)</sup>

1954년 (구강외과학) Oral and maxilla facial  
Surgery : Rabut. M. Booth<sup>69)</sup>

1959년 (구강외과학) Method of Reducing  
Fractures of the Mandible and Maxilla :  
Justing E. McNelly<sup>70)</sup>

1959년 (구강외과학) Temporomandibular  
Joint disturbance due to closed bite :  
kenneths Masumoto<sup>71)</sup>

1959년 (구강외과학) Surgical Flap in Oral

Surgery : Dwicht A. Burgan<sup>72)</sup>

1961년 (구강외과학) T. M. J. Disturbances :  
Benjamikn Ammen Werth<sup>73)</sup>

1962년 (구강외과학) Bilateral Vertical  
Osteotomy for Correction, of prognathism  
: Paul. H. Mofarland<sup>74)</sup>.

1966년 (구강외과학) 구순 및 구개파열수술에 관하-  
여 : 永井嚴<sup>75)</sup>

1968년 (구강외과학) 발치와 관련된 제 문제 : 大井  
清<sup>76)</sup>

1959년 (Implant) The subosteal Implant  
Denture : Roy, L. Bodine Jr., Chang Hung  
Kyoo<sup>77)</sup>

1959년 (Implant) The Implant Denture :  
Roy, L, Bodine<sup>78)</sup>

1954년 (국소마취학) William H, Bigelow :  
Outline of Oral Surgery with Local  
Anesthesia<sup>79)</sup>,

1959년 (예방치의학) The Effectiveness of

64) (영상치의학) 69-특-1, Strahlenexposition und Strahlenschutz bei ber Rontgen – Diagnostik in der Zahn–Mund, und Kieferheilkunde : Eberhard Sonnabend

65) (교정학) 58-테-31, Orthodontic Treated Cases : S. Wallace Bell

66) (구강외과학) 47-특-24, 구강외과 문제에 관하여 : H. M. 테일러

67) (구강외과학) 48-특-21, 구강외과 문제에 관하여 : Iloward Maylor

68) (구강외과학) 52-특-13, Exodontia : William Begelowr

69) (구강외과학) 54-특-17, Oral and maxilla facial Surgery : Rabut. M. Booth

70) (구강외과학) 59-테-86, Method of Reducing Fractures of the Mandible and Maxilla :Justing E. McNelly

71) (구강외과학) 59-특-44, Temporomandibular Joint disturbance due to closed bite : kenneths Masumoto

72) (구강외과학) 59-특-70, Surgical Flap in Oral Surgery : Dwicht A. Burgan

73) (구강외과학) 61-특-30, T. M. J. Disturbances : Benjamikn Ammen Werth

74) (구강외과학) 62-특-15, Bilateral Vertical Osteotomy for Correction, of prognathism : Paul. H. Mofarland.

75) (구강외과학) 66-학-3, 구순 및 구개파열수술에 관하여 : 永井嚴

76) (구강외과학) 68-특-4, 발치와 관련된 제 문제 : 大井清

77) (구강외과학) 59-특-45, The subosteal Implant Denture. Roy, L, Bodine Jr, Chang Hung Kyoo

78) (구강외과학) 59-테-74, The Implant Denture : Roy, L, Bodine

79) (마취학) 54-43 : William H, Bigelow : Outline of Oral Surgery with Local Anesthesia, 대한치과의학회지 1 : 1.

Topical application of Stenous Fluoride in caries Reduction : Shewwood F. Benhart<sup>80)</sup>

1967년 (구강조직학) 최신 구강조직학에 관하여 : 白數美輝雄<sup>81)</sup>

1947년 (치과약리학) 항독성 물질 특히「페니실린」과 「스트렙토 마이신」에 관하여 : 허 규<sup>82)</sup>  
(치과약리학) 페니실린의 치과응용에 관하여 : R. H. 슈멜<sup>83)</sup>

1947년 (치과재료학) 치과기재에 대하여 : M. A. 패튼<sup>84)</sup>

1964년 (경영관리학) 일본의 직업경영사정과 한국과의 비교 : 木下隆治<sup>85)</sup>

『치학(齒學)』을 중심으로 한 외국문헌의 번역은 새로운 지식으로 현대 치의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55년 (진단) 변중수 역, 왜 환자들이 잘 낫지 않

는가<sup>86)</sup>,  
1961년 (보존) 서영광 역, 우식증의 관리과정<sup>87)</sup>,  
(보존) 편집부 역, 깊은 치아우식증의 임상적 처리<sup>88)</sup>,  
1967년 (보존) 윤풍길 역, 아말감 치료 후에 발생한 간질성 기증<sup>89)</sup>,  
1966년 (보존) 윤풍길 역, 깊은 우식부에 있어서 Ca(OH)<sub>2</sub>의 영향<sup>90)</sup>,  
1959년 (근관치료) 김주태 역, 파절된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법<sup>91)</sup>,  
1961년 (근관치료) 변중수 역, 제2차 국제보존학회, 근관치료의 원칙<sup>92)</sup>,  
1964년 (근관치료) 서진관 역, 근단주위병상의 임상적 광선사진 및 조직병리적인 평가<sup>93)</sup>,  
1958년 (보철,금) 김주태 역, 스틸 전장도치 (Steel's Facings) 보호<sup>94)</sup>,  
1959년 (보철,금) 김주태 역, 전방 Pontic의 즉석 수리법<sup>95)</sup>,  
(보철,금) 김주태 역, Jacket Crown을 위한 인상 지도<sup>96)</sup>,  
(보철,금) 김주태 역, 완전 고정 Jacket Crown을 위한 준비<sup>97)</sup>,  
(보철,금) 김주태 역, 고정가공의치 제작에서 지대

80) (예방치의학) 59-특-72. The Effectiveness of Topical application of Stenous Fluoride in caries Reduction : Shewwood F. Benhart

81) (조직학) 67-특-5. 최신구강조직학에 관하여 : 白數美輝雄

82) (약리학) 47-특-13. 항독성 물질 특히「페니실린」과 「스트렙토 마이신」에 관하여 : 허 규

83) (약리학) 47-특-22. 페니실린의 치과응용에 관하여 : R. H. 슈멜

84) (치과재료학) 47-특-25. 치과기재에 대하여 : M. A. 패튼

85) (경영관리학) 64-특-4. 일본의 직업경영사정과 한국과의 비교 : 木下隆治

86) (진단) 55-16 : Kaneth, M. Scott, 변중수 역, 왜 환자들이 잘 낫지 않는가, 치학 2 : 9.

87) (보존) 61-36 : 서영광 역, 우식증의 관리과정, 치학 8 : 6.

88) (보존) 65-4 : 편집부 역, 깊은 치아우식증의 임상적 처리, 치학 12 : 3.

89) (보존) 67-29 : 윤풍길 역, 아말감 치료 후에 발생한 간질성 기증, 치학 14 : 9.

90) (보존) 66-17 : 윤풍길 역, 깊은 우식부에 있어서 Ca(OH)<sub>2</sub>의 영향, 치학 13 : 5.

91) (근치) 59-85 : 김주태 역, 파절된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법, 치학 6 : 8.

92) (근치) 61-18 : 변중수 역, 제2차 국제보존학회, 근관치료의 원칙, 치학 8 : 2.

93) (근치) 64-32 : 서진관 역, 근단주위병상의 임상적 광선사진 및 조직병리적인 평가, 치학 11 : 6.

94) (보철,금) 58-11 : 김주태 역, Steel's Facings(스틸 전장도치) 보호, 치학 5 : 7.

95) (보철,금) 59-97 : 김주태 역, 전방 Pontic의 즉석 수리법, 치학 6 : 11.

96) (보철,금) 59-96 : 김주태 역, Jacket Crown을 위한 인상지도, 치학 6 : 11.

97) (보철,금) 59-89 : 김주태 역, 완전 고정 Jacket Crown을 위한 준비, 치학 6 : 9.

치 병행을 위한 주조내 금관제작법<sup>98)</sup>,  
 (보철,금) 김주태 역, 완전고정 Jacket Crown을  
 위한 치아준비<sup>99)</sup>  
 1958년 (보철,부) 김주태 역, 가공의치를 위한 전방  
 지대<sup>100)</sup>,  
 1959년 (보철,부) 김주태 역, 부러진 의치 치아의  
 회복<sup>101)</sup>  
 1954년 (보철,총) 진용환 역, Iruivg Mender의  
 Immediate Full Dentures 보철법<sup>102)</sup>,  
 1961년 (소아치과) 이의숙 역, 괴혈병(유아형)<sup>103)</sup>,  
 1966년 (교정학) 안춘길 역, Prevalance of  
 Malocclusion in Seventh Grade Children  
 in Two North Carolina Cities<sup>104)</sup>,  
 1954년 (구강외과) 안형규 역, Autoplasty of  
 Eucleated Prefunctional Third Molars<sup>105)</sup>,  
 1955년 (구강외과) 편집자 역, The Dental  
 Treatment of Maxillo-Facial Injures 초록,  
 악골 골절형에 대하여<sup>106)</sup>,  
 1963년 (구강외과) 서진관 역, 치아자가이식술의

임상적 응용<sup>107)</sup>,  
 1955년 (Implant) Leonardl Linkow, 김동익  
 역, The unilateral implant<sup>108)</sup>,  
 1956년 (국소마취학) 김동익 역, 푸로카인 민감성  
 의 2 환자에 관한 보고<sup>109)</sup>,  
 1958년 (국소마취학) Hillard R, Nevin, 박래영  
 역, Mastering the Mandibular a Corres  
 pondence on Injection Technique<sup>110)</sup>,  
 1961년 (국소마취학) 서영광 역, 폐구 하악 전주 마  
 취법<sup>111)</sup>,  
 1955년 (구강병리학) 박래영 역, 치과에 필요한  
 피부질환의 지식<sup>112)</sup>,  
 1961년 (구강병리학) 이의숙 역, 비열대성아구창<sup>113)</sup>,  
 (구강병리학) 이의숙 역, 영양부족의 증후와 구강증  
 상<sup>114)</sup>,  
 (구강병리학) 이의숙 역, 흑설증(Black Tongue)<sup>115)</sup>,  
 1962년 (구강병리학) 이상일 역, 내장다발식육을  
 동반한 구강 흑색소 침착증의 증후<sup>116)</sup>,  
 (구강병리학) 이상일 역, 낭성활액증(囊性滑液症)<sup>117)</sup>,

98) (보철,금) 59-88 : 김주태 역, 고정가공의치 제작에서 지대치 병행을 위한 주조내 금관제작법, 치학 6 : 9,  
 99) (보철,금) 59-89 : 김주태 역, 완전고정 Jacket Crown을 위한 치아준비, 치학 6 : 9,  
 100) (보철,부) 58-15 : 김주태 역, 가공의치를 위한 전방지대, 치학 5 : 9  
 101) (보철,부) 59-66 : 김주태 역, 부러진 의치 치아의 회복(1)-(2), 치학 6 : 3, 4.  
 102) (보철,총) 54-42 : Iruivg Mender 진용환 역 : Immediate Full Denture Prosthesis, 대한치과의학회지 1 : 1.  
 103) (소아치과) 61-19 : 이의숙 역, 괴혈병(유아형), 치학 8 : 2,  
 104) (치아교정학) 66-27 : 안춘길 역, Prevalance of Malocclusion in Seventh Grade Children in Two North Carolina  
 Cities, 치학 13 : 8.  
 105) (구강외과) 54-44 : Harland 멜디, 안형규 역 Autoplasty of Eucleated Prefunctional third Molars, J, of Oral Surgery 1  
 : 4, 대한치과의학회지 1 : 1.  
 106) (구강외과) 55-26 : 편집자, The Dental Treatment of Maxillo -Facial Injures 에서 초록, 악골 골절형에 대하여, 치학 2 : 11.  
 107) (구강외과) 63-23 : 서진관 역, 치아자가이식술의 임상적 응용, 치학, 10 : 1.  
 108) (Implant) 55-5 : Leonardl Linkow, 김동익 역, The unilateral implant(일방식입) (1)-(2), (Dental Digest 1954, 6), 치학 2 : 3, 4.  
 109) (마취학) 56-9 : 김동익 역, 푸로카인 민감성의 2 환자에 관한 보고, 치학 3 : 3.  
 110) (마취학) 58-14 : Hillard R, Nevin, 박래영 역, Mastering the Mandibular a Correspondence on Injection Technique,  
 치학 5 : 9.  
 111) (마취학) 61-38 : 서영광 역, 폐구 하악 전주 마취법, 치학 8 : 7.  
 112) (병리학) 55-28 : 박래영 역, 치과에 필요한 피부질환의 지식, 치학 2 : 11.  
 113) (병리학) 61-28 : 이의숙 역, 비열대성아구창, 치학 8 : 4.  
 114) (병리학) 61-13 : 이의숙 역, 영양부족의 증후와 구강증상, 치학 8 : 1.  
 115) (병리학) 61-24 : 이의숙 역, 흑설증(Black Tongue), 치학 8 : 3.  
 116) (병리학) 62-17 : 이상일 역, 내장다발식육(이종증)을 동반한 구강 흑색소 침착증의 증후, 치학 9 : 6.

1963년 (구강병리학) 서진관 역, 혈액질환에 있어서의 구강증상<sup>118)</sup>  
 (구강병리학) 서진관 역, 혈관 신경성 부종의 증례 보고<sup>119)</sup>,  
 1964년 (구강병리학) 서진관 역, Hurler-Pfaundler 및 Pierre-Robin씨 증후군에 있어서의 구강증상 발현<sup>120)</sup>,  
 1966년 (구강병리학) 윤풍길 역, 근긴장증의 근육 영양장애에 있는 구강상태<sup>121)</sup>,  
 (구강병리학) 윤풍길 역, 다발성으로 매복, 봉출된 과잉치<sup>122)</sup>,  
 (구강병리학) 안춘길 역, 정중구개 낭종과 관련되어 나타난 우측전비공예의 과잉치<sup>123)</sup>,  
 (구강병리학) 안춘길 역, 다발성 과잉치 환자에 있어서 하악 과잉견치<sup>124)</sup>,  
 1962년 (구강조직학) 이상일 역, 구강조직학<sup>125)</sup>,  
 1963년 (치과약리학) 이상일 역, Oral Medicine<sup>126)</sup>,  
 1968년 (치과약리학) 서진관 역, 화학요법제의 구강응용<sup>127)</sup>,  
 1962년 (구강생리학) 이상일 역, 생리학<sup>128)</sup>,  
 1966년 (구강세균학) 윤풍길 역, 구강양묘균증<sup>129)</sup>,

1954년 (예방치의학) 박원수 역, 충치의 이야기<sup>130)</sup>,  
 1956년 (예방치의학) 변중수 역, 미국치과의사회에서 결정한 치과 공중위생의 대상과 활동범위<sup>131)</sup>,  
 1959년 (예방치의학) 김주태 역, 구강위생 문답<sup>132)</sup>,  
 1955년 (예방치의학) 김주태 역, 왁스 빠다의 취급법(1)-(2)<sup>133)</sup>,  
 1962년 (치과재료학) 김용선 역, 세계에 있어서의 치과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Ultra High Speed Cutting Equipment를 개술함과 아울러 사건을 논함<sup>134)</sup>,

### Ⅲ. 1946-1969년 현대 치의학의 발전

한국 현대 치의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연제와 논문, 증례, 종설 등의 제목을 이용하였다.

1945-1969년 한국 치과 의사의 학술활동을 본고에서는 편의상 임상치위생학과 기초치위생학을 합하여, 구강진단학, 치과보존학, 근관치료학, 보철학, 금관계속 가공의치학, 총의치학, 국소의치학, 소아치과학, 치주

117) (병리학) 62-32 : 이상일 역, 낭성활액증(囊性滑液症), 치학 9 : 12.  
 118) (병리학) 63-25 : 서진관 역, 혈액질환에 있어서의 구강증상(1)-(2), 치학 10. 2, 3.  
 119) (병리학) 63-39 : 서진관 역, 혈관 신경성 부종의 증례보고, 치학 10 : 6.  
 120) (병리학) 64-33 : 서진관 역, Hurler-Pfaundler 및 Pierre-Robin씨 증후군에 있어서의 구강증상 발현, 치학 11 : 6.  
 121) (병리학) 66-29 : 윤풍길 역, 근긴장증의 근육 영양장애에 있는 구강상태, 치학 13 : 9.  
 122) (병리학) 66-14 : 윤풍길 역, 다발성으로 매복, 봉출된 과잉치, 치학 13 : 4.  
 123) (병리학) 66-18 : 안춘길 역, 정중구개 낭종과 관련되어 나타난 우측 전비공예의 과잉치, 치학 13 : 5.  
 124) (병리학) 66-21 : 안춘길 역, 다발성 과잉치 환자에 있어서 하악 과잉견치, 치학 13 : 6.  
 125) (조직학) 62-16 : 이상일 역, 구강조직학, 치학 9 : 4.  
 126) (약리학) 63-22 : 이상일 역, Oral Medicine, 치학, 1 : 1.  
 127) (약리학) 68-8 : 서진관 역, 화학요법제의 구강응용, 치학 15 : 4.  
 128) (생리학) 62-13 : 이상일 역, 생리학(1)-(2), 치학 9 : 3, 5.  
 129) (세균학) 66-26 : 윤풍길 역, 구강양묘균증, 치학 13 : 8.  
 130) (예방치의학) 54-53 : 石川純, 박원수 역, 충치의 이야기, 치학 1 : 11.  
 131) (예방치의학) 56-1 : 변중수 역, 미국치과의사회에서 결정한 치과공중위생의 대상과 활동범위(일본의사신문 1626호), 치학 3 : 1.  
 132) (예방치의학) 59-78 : 김주태 역, 구강위생 문답, 치학 6 : 6.  
 133) (치과재료학) 55-36 : 岡田泰紀, 김주태 역, 왁스 빠다의 취급법(1)-(2), 치학 2 : 12, 3 : 1.  
 134) (치과재료학) 62-18 : 김용선 역, 세계에 있어서의 치과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Ultra High Speed Cutting Equipment를 개술함과 아울러 사건을 논함, 치학 9 : 6.

병학, 방사선학, 치아교정학, 구강외과학, 국소마취학, 종양학, 구강병리학, 예방치의학, 치과재료학, 구강해부학, 구강발생학, 구강조직학, 구강약리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세균학, 경영관리학, 치과의

사학으로 구분하였고, 주제별로 분류하였다<sup>135)</sup>.

도표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학술강연회 연제와 논문, 증례 및 종설을 참조하여 1946-1969년 한국 치과의사의 학술 활동을 분류한 도표이다<sup>136)</sup>.

1946-1969년 한국 치과의사 학술 활동 분류 도표

치의학	논문, 증례, 종설	학술강연회 연제	합계
구강진단학	35	15	50
치과보존학	62	26	88
근관치료학	104	42	146
보철학	43	57	100
금관계속기공의치학	58	50	108
총의치학	34	29	63
국소의치학	29	12	41
소아치과학	44	30	74
치주병학	113	80	193
방사선학	39	24	63
치아교정학	32	43	75
임상치의학 및 기초치의학	구강외과학 310 국소마취학 43	224 13	534 56
	종양학 164	127	291
	구강병리학 211	106	317
	예방치의학 182	120	302
	치과재료학 92	27	119
	구강해부학 112	77	189
	구강발생학 42	25	67
	구강조직학 43	41	84
	치과약리학 88	42	130
	구강생리학 15	1	16
	구강생화학 3	1	4
	구강세균학 9	6	15
	경영관리학 17	11	28
	치과의사학 65	6	71
합계	1989	1235	3224

135) 논문 등과 학술강연회 연제를 구분하기 위하여 논문 등은 과별구분, 년도 수, 개별번호, 저자 이름,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호 수의 순서로 하였고, 학술강연회 연제는 과별구분, 년도 수, 학술대회, 개별번호, 논문제목, 연자 이름 순서로 하였다.  
 (진단) 62-149 : 김종원, 한국인 노인치과에 관한 연구, Medical Digest 4 : 10.  
 (진단) 62-학-2. 한국인 노인의 치과질환에 대한 고찰 : 김종원

사용된 항목은 모두 3224로 논문, 증례 및 증설이 1989, 학술강연회 연제가 1235이었다. 비교한다면 학술강연회 연제는 논문, 증례 및 증설 연제 보다 임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56년 4월 22일 제8회 대한치과의학회 학술강연회 이후 임상가에게 필요한 테블크리닉을 개최하여, 임상 부분을 강화한 경향 때문이었다<sup>137)</sup>.

구강외과학, 국소마취학, 종양학, 구강병리학의 항목이 1198으로 전체 항목의 1/3에 해당된다. 이것은 1946-1969년 현대 치의학 발전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학술활동이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철학, 금관계속가공의치학, 총의치학, 국소의치학의 항목은 312으로 약 1/10 이고, 치의학의 대표적인 질환 충치를 치료하는 치과보존학, 근관치료학의 항목은 246로 약 7.5%에 그친다. 치주병학의 항목은 193으로 약 6%이고, 치아교정학의 항목은 75로 약 2.3%이나 학술강연회 연제가 논문, 증례, 증설보다 많다는 것은 임상가들의 요구가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방치의학의 항목이 302로 9.4%인 것은 치의학의 대표적인 질환 충치의 검사와 예방에 관한 140 항목이었다. 구강해부학, 구강발생학, 구강조직학이 340로 약 11%인 것은 대학원 교육과 연관된 활발한 학술활동을 볼 수 있다. 치과약리학이 130 항목으로 약 4%인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온 연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치과재료학이 119 항목으로 약 3.7%인 것은 현대 치의학에서 재료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치과의사학이 71 항목으로 약 2.2%인 것은 인문학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과별, 주제별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1. 구강진단학

구강진단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증설은 “1955년 박재암, 오진 문제에 대하여,”이었다<sup>38)</sup>.

구강진단학은 치료학의 처음이었다. 진단과 치료 계획, 오진과 왜 환자들이 잘 낫지 않는가? 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노인은 노인의 기준으로 진단을 하여야 하였고, 진단은 책임이 동반하였다. 구강진단학에서 탈락세포와 박리세포와 치아 및 골의 대사 연구는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 2. 치과보존학

치과보존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증설은 “1947년 박유신, 충전학에서 관찰한 치아의 조성,”이었다<sup>39)</sup>.

선사시대에 대표적인 치과질환은 치아 교모이었으나, 현대 치의학의 대표적인 질환은 치아우식증이었고, 치과보존학 총론은 치아 보존을 위한 이론과 실제이었고, 치아 조성, 갈바니 전류, Aerodontia, 치아의 색에 관한 연구가 치과보존학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

Amalgam은 널리 사용되는 충전재이었고, Inlay는 또 하나의 충전 방법이었다. 또한 충전 방법으로 Cement, Resin과 금박충전 등이 있었고, 충전 보조 방법으로 이장재와 가봉제가 상아질과 치수와 지각과민에 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 3. 근관치료학

136) 구분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하기에 많은 자료가 있는 부분은 종양학이나 발생학과 같이 따로 항목을 만들었고, 보철을 위한 교정치료 같은 두 곳에 속하는 것은 편의에 따라 한 곳으로 구분 하였다. 임상치위학과 기초 치위학이 겹칠 때는 임상 치위학으로 구분한 경향이었고, 저자에 처한 위치에 따라 구분하기도 했다. 학술강연회의 경우 완전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과별 분류는 물론 무리가 따랐던 것을 이야기 한다.

137)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pp. 79.

138) (진단) 55-11 : 박재암, 오진 문제에 대하여, 치학 2 : 6.

139) (보존) 47-8 : 박유신, 충전학에서 관찰한 치아의 조성, 조선치과의보 1 : 1.

근관치료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종설은 “1946년 이 유경, 치아근관치료에 역사적 고찰,”이었다<sup>140)</sup>.

근관치료학은 역사적 산물이며, 치아 보존을 위한 또 하나의 이론과 실제이었다. 근관치료의 대상은 손상된 치아이었고, 생활치수절단술과 치근단절제술의 총론, 증례, 연구가 행하여 졌다.

근관치료를 위하여 X-Ray 감식법, 현미경적 조사, 조직학적 소견으로 조치세포층의 염증, 치수의 혈액순환, 근단부 회복, 치유과정, 제2상아질 침착 시기, 치수관 석회화, 근관충전의 시기, 근관확대, 실패 원인으로 발수 후의 우발증 등을 연구하였다.

근관치료 약제에 항생물질, 아비산, 초산은, Organogen, Phenol(carboric acid), “N2”, Steroid hormone, Formocresol과 Zinc Oxide 등의 약제가 사용되었다.

#### 4. 보철학

보철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재는 “1947년 자가 고안한 도치배열 구면 기준판에 관하여 : 정보라”이었다<sup>141)</sup>.

악골 손상의 보철은 외과 수술과 관련하여 안면정형 보철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치과 의사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었다.

치아상실과 회복을 위한 치료계획, 시대치 형성, 인상채득, 교합인기와 조각법, 매복과 주조, 가공치 조제, 통계와 전망을 하였다.

교합에 관한 이론과 실제로 한국인의 교합력에 관한

연구가 되었다. 총의치, 국부의치, 보철물 장착환자, 치주질환자, 부정교합 환자, 원아와 소년의 교합력이 측정되었고, 저작능률에 관한 연구로 하악 접촉운동과 중심교합에서 교합면 접촉점수와 교합기 구성에 관계되는 하악골의 계측을 하였다. 한국인에서의 Free-Way Space 측정 등의 연구를 하여 교합(Occlusion)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보철물 제작에서 Hanau Articulator 임상적 가치와 납(Paraffin Wax)교합에 의한 과로 측정 결과, 조절만곡 등이 보고되었다.

정밀한 주조물을 얻기 위하여 재료와 구강내 상태에 따른 응용물리학을 이용한 기능인상, 근 형성 인상 등이 사용되었다.

치아 배열을 위하여 한국인의 전치부 경사도, 염전도, 치열만곡 등을 연구하였다.

#### 5. 금관계속가공의치학

금관계속가공의치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구는 “1946년 정보라, 의치용 재료인 애크리릭 레진(Acrylic Resin) 임상적 응용으로 치관과 도치 제작에 관한 연구,”이었다<sup>142)</sup>.

금관 제작의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었다. Morison Crown, Pontic form and Bridge design, Flxed Bridge의 적응증과 금기증, Complate Veneer Metal Crowns과 gold crown, Dowel crown(Pivot post crown), Lingual pin을 이용한 Cast gold restoration, Temporary Crown과 S, P, Crown 등이 보고되

140) (근치) 46-2 : 이유경, 치아근관치료에 역사적 고찰, 조선치계 1 : 1.

141) (보철,0) 47-학-16. 자가 고안한 도치배열 구면 기준판에 관하여 : 정보라

142) (보철,금) 46-1 : 정보라, 「애크리릭」수지 의치용재의 임상응용에 관한 연구, 기1 「인레-」치관 「뿌리지」도치제작에 대하여, 조선치계 1 : 1.



었다.

심미적인 보철을 위하여 Acrylic Resin의 치관과 도치 제작, Steel's Facings, Jacket Crown, 3/4 Gold Crown, Porcelain Fused to Metal Technique이 개발되었다.

금관의 원심주조법에 관한 금관 풍룽기, 금관 뇌룽기, Casting ring 소환법, 스푸루션 세우기와 매물 법과 전기납착과 납착용 연결(Joint)의 기공법에 대하여 보고되었다.

모형의 표면경도, 주조금관과 Resin의 접착성, 연장가공의치의 X-선학적 관찰, 주조물 접착 후의 Cement층 후경, 가공의치 정밀도, 부적합한 금관가공의치(Crown and Bridge)의 철거와 치조골이 재생에 관한 연구가 되었다.

인상재 Alginate와 Rubber-Base 사용법과 individual tray 제작을 설명하였다.

## 6. 총의치학

총의치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제는 “1947년 전부 의치상의 접착력에 대한 1고찰 : 정용국”이었다<sup>143)</sup>.

Acrylic Resin 상 의 치 와 즉 시 총 의 치 (Immediate Full Dentures)가 보고되었다. 총의치는 접착력과 의치상 유지가 중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개형과 의치, 도치 배열법, 무교두 도치 사용의 적응증, 전치부 심한 이동성 조직상에서 총의치 제작 주의사항이 보고되었다.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인상법으로 기능인상과 교좌인상법과 복제(Duplication), 구강 내 온도에 녹는 Wax 인상재가 사용이 보고되었다. 의치상의 유지 방법으로 Skin-

folded pocket 법, 자석 매식법, 구개 완형강 사용법, 구강의 외과적 처치와 추후 처치가 추천되었다. 안면회복을 위하여 교합과 안면 고경을 연구하여야 했다. 총의치의 실패 원인으로 의치상연에 의한 궤양, 치조골의 흡수와 의치상을 장착하였을 때의 발음변화와 연하역치에 관한 연구가 되었다.

## 7. 국소의치학

국소의치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종설은 “1955년 김영해, 국부의치의 설계이론,”이었다<sup>144)</sup>.

국소의치의 설계와 계획, 국부의치를 위한 생리학적 개념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소의치에 관한 이론은 계속적인 과제였다. 일체조(One Piece Casting)과 Acrylic상 연합 국부의치 조제 순서에 관한 상담이 되었다. 국소의치의 유지 장치으로 Direct Retainers, Clasp, 정밀부착철(Precision Attachment), 전방지대치가 고안되었다. 국소의치 유지를 측정하기 위한 Ney Under Gauges가 사용되었고, 도치와 레진치아의 저작능률이 비교되기도 하였다.

국소의치를 위한 인상채득법으로 기능인상과 납저작법(Wax chewing method)가 소개되었다. 국부의치의 수리로 부러진 의치 치아의 회복, 지대치에 Caries가 생겼을 때와 Partial denture에 의한 동통과 그의 처치가 문제점이었다. 기타 보철물로 교합제 (Bite Block)와 구강 보호 장치 (Mouth Protector)가 보고되었다.

## 8. 소아치과학

143) (보철,총) 47-학-31, 전부 의치상의 접착력에 대한 1고찰 : 정용국

144) (보철,부) 55-7 : 김영해, 국부의치의 설계이론, 치학 2 : 6,

소아치과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제는 “1956년 생활치수절단 : 차문호”이었다<sup>145)</sup>.

소아치과학은 유치의 맹출, 흡수 등의 연구와 유치에 대한 조기 발치와 간격 유지, 제2급아말감충전(Class II Amalgam Filling), 생활치수절단 등의 치료와 함께 발전하였다. 소아치과에 대한 총론을 비롯하여 영구치 발육, 치아 건강지수, 아동의 교합형, 아동의 부정교합, 상악중절치 치간이개증, 유치 치관에 관한 형태, 기형치, 교합력, 소아 저작근의 근전도 분석, 우식이환의 진행경로, 우식증과 치은염에 관한 고찰, 유전치의 심미적 회복, 소아의 심리적 성장, 전신질환과의 관계 등을 연구하였다.

## 9. 치주병학

치주병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제는 “1947년 치조농루증의 성인과 그 대책 : 배진극”이었다<sup>146)</sup>.

치아주위조직에 대한 연구로는 실험동물에서 치아주위조직과 치은조직 세포분열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또한 치주조직 염증 시에 치은과, 치근막, 변연점채(Marginal stippling)와 각화도, 혈액의 생화학적 연구, 당뇨병과 내분비장애와 생식선 기능이상에서의 치아주위조직 연구가 되었다.

치주병학에서 X-선상 연구는 치조농루증에서 치조골 흡수, 보철시에 치주 문제, 골하방(Infrabony) Pocket의 처치 후에 치조골과 치근막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행하여졌다.

치조농루증(Alveolar Pyorrhea)에 대한 치료법

으로 수술과 치은연하 소파술이 적용되었고, Vitamin-K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치조농루증에서 분리한 포도상구균의 성상이 보고되었고, 치조농루와 부담과중교합과의 관계가 규명되었다. 치은염(Gingivitis)에 대한 진단과 치료, 약물요법, 증례보고와 통계, 역학적 연구를 하였다.

치아주위조직질환의 통계는 치아주위조직질환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개업의를 위한 임상에 필요한 치주병학이 별도로 소개되었다.

치아주위조직병의 분류가 되었고, 치료를 위한 개념이 정리되었다. 문헌적 고찰과 최신지견으로 진단되고 치료계획이 수립되었다. 치주질환 치료는 치주병에서의 발치, 약골 성형, 보철물과 부정교합과의 관계, 외상성 교합과의 관계, 계속 붓출이 치주에 미치는 영향, 치료에 대한 환자의 책임 등이 고려되어 안전한 예후가 되도록 하였다.

치아주위조직질환 치료 방법으로 치주조직의 재부착, 치은절제술(Gingivectomy), 소파술(curettage), 치육박리소파술(Flap Operation), 교합조정, 골 이식이 제시 되었다. 치주병 치료를 위한 고정장치는 치아의 동요를 막는 장치였고, 치아주위조직질환에 약물요법이 제시되었다.

치주질환에서 치석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치석 침착 기전이 관찰되고, 치석제거의 임상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치은 비대는 치주질환의 한 부분이었고, 구취는 구내염의 한 부분이었다.

## 10. 방사선학

방사선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구는 “1954년 김주

145) (소아치과) 56-학-14. 생활치수절단 : 차문호

146) (치주) 47-학-30. 치조 농루증의 성인과 그 대책 : 배진극

(치주) 48-1 : 배진극, 치조농루증의 성인과 그 대책(그1), 조선의보 2 : 1, 3.

환, X-선상으로 본 한국인 하악지치 출은 상태,"이었다<sup>147)</sup>.

방사선학은 하악 수평지치와 같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었다. 영상치의학의 새로운 강좌가 개설 되었고, 방사선 심부 치료가 방사선이 인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수행되었다. 영상치의 학이 무엇보다도 치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임상 각과의 진단과 치료에 응용되었다.

## 11. 치아교정학

치아교정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증례는 "1947년 Angel 분류 부정교합 classⅢ(하악 전치 돌출)에 속하는 case 1형례 : 이유경"이었다<sup>148)</sup>.

부정교합에 대한 진단과 이환율과 교정 장치의 선택과 증례가 보고되었다. 한국인에 대한 Roentgenographic Cephalometry에 의한 기준치가 작성되어 교정치료에 이용하게 되었다. Spring 제작, Adam's clasp 제작 등의 Removal Appliance의 설계 및 제작법과 Activator와 Mershon's lingual arch의 구조와 그 작용, Jarabak의 Light Wire Arch Technique 등이 소개되었다.

교정 증례분석과 임상가를 위한 교정학 강좌와 부정교합 환자를 위한 교정 상담이 되었다. 부정교합에 관한 통계가 보고되었다. 부정교합자의 조직, 해부, 생리, 재료, 외과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임상으로 예방교정 술식과 함께 Light Wire 법, Twin Wire Arch의 제작법, Labiolingual Arch 제작법, Begg's Light Force Technique, Tweed

Method에 의한 교정법 등이 제시되었다.

## 12. 구강외과학

구강외과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증설은 "1946년 박유신, 치아우식에 대한 치통론,"이었다<sup>149)</sup>.

사람들은 치통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치의학의 역사에서 치통은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하였다. 치과의사는 치통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면서, 치통의 무통적 치료뿐만 아니라 응급처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구강외과학은 안면 및 구강의 발육과 그 변이, 최신 지견, 통계적 관찰 등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임상가를 위한 구강외과학에서는 치과 보철, 소아를 위한 증례가 소개되었다.

치과 진료 시에 응급처치로 악안면 창상에 의한 구강출혈 처치, Shock의 생리와 치료, 인공호흡에 의한 구급법이 소개되었다.

발치는 전후 검사와 적응증과 금기증 확인이 필요하였고, 발치로 인한 감염, 발치와 절개, 발치 시에 가해지는 역력에 관한 연구, 발치기구 Elevator에 대한 사용법, 최근요법 등이 보고되었다. 발치 후 동통의 진단과 처치와 발치로 인한 출혈과 혈액상의 변화 등이 보고되었다. 발치창의 치유기전으로 발치와내의 혈액 응고수축을 관찰하였고, 발치창의 처치에 대하여, 정맥혈액으로 발치와내 출혈병 형성을 도모한 증례와 Dry socket 치료법에 Ward's pack 사용법 등이 보고되었다. 매복치의 발치, 성인의 매복치와 발치에 대한 통계가 보고되었다. 특히 지치에 대하여 발육, 맹출, 경사방향, 위치, 만성 지치주위염, 매복 관련통, 주위염으로 인한 안면마취, 수평 맹출로 인한

147) (방사선학) 54-20 : 김주환, X-선상으로 본 한국인 하악지치 출은 상태, 대한치과학회지 1.

148) (교정학) 47-학-28. Angel 분류 부정교합 classⅢ(상악 전치 돌출) 속하는 case 1형례 : 이유경

149) (구강외과학) 46-4 : 박유신, 치아우식에 대한 치통론, 조선치계 1 : 1.

제2대구치 치근흡수, 발거 시에 생기는 출혈량, 상악 제3대구치의 맹출물과 치아우식, 상악동 내에 맹출한 지치 등이 보고되었다.

악골에 관한 병소, 절제수술, 골체 골절선, 지식, 색인 장치 등이 보고되었고, 구강외과의사의 시체 상 외과실습이 보고되었다.

수술전후 처치와 Dressing method을 비롯하여, 경부절제를 비롯하여 편도선 절제수술, 하악간 농양의 절개수술, 치근단 절제술의 절개선, 치성안면피부 누공에 근치수술, 치은색소침착증의 외과적 처치, 가셀씨 신경절 부위 수술의 변법이 보고되었다.

골수염은 급성과 만성 골수염의 원인과 치료, 결핵 증으로 인한 만성골수염, Garre's Osteomyelitis, Sclerosing Osteitis, 골수염을 수반한 하악골 골절, 상악골 종양과 혼돈된 상악골 골수염, 신생아 하악골 골수염의 증례와 치료에 Squestrectomy와 Saucerization 술식이 보고되었다.

악골 골절에 대한 고정법의 역사적 고찰, 악골 골절형, 과학적 치료법이 보고되었고, 악골골절의 통계적 관찰이 이루어졌다.

악골 골절 고정의 방법으로 부목 고정법, 구강 내외 장치로 circumferential wiring 적용법, Resin 등을 이용한 술식, Stou의 Intermaxillary Multiple Loop Wiring, Anderson Pins 고정법, Obwegester의 고정법, 관골공 골절에 대한 Gilies 수술법 등이 보고되었다.

상악골 골절, 하악골 골절, 무치 하악골 골절, 관절 돌기 골절에 대한 증례 등이 보고되었다. 상악동염과 아관긴급과 하악관절 이상과 3차신경통과 안면신경마비에 관한 증례와 혀의 질환과 타액선 질환에 관한 증례가 보고되었다.

악안면 창상, 악안면외과, 악안면성형외과에 관한

증례가 보고되었다. 성형을 위한 봉합술과 피부이식과 피부사절개법이 고안되었다. 반흔조직형성 억제 방법에 의한 성형술과 Sulcus의 성형술의 임상적 연구가 보고 되었다.

골 이식은 골 결손 환자의 성형술에서 필요하였다. 늑골이식에 의한 하악골결손의 치료 증례가 보고되고, Bone Bank(뼈 은행)이 설립되었다.

치아재식술이 실시되었고, 지치를 이용한 치아 이식법을 할 수도 있었다.

Implant는 합성수지의 조직 내 사용을 비롯하여 unilateral implant, Implant Denture가 보고되었다.

구개파열의 치료는 비익 및 구순 결손부 성형술로 결손으로 인한 언어 발음 치료의 실재를 포함하였다.

교정을 위한 골절단술은 선천적 및 후천적 하악 전돌 환자의 성형수술이었다.

### 13. 국소마취학

국소마취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제는 “1952년 염산프로카인 국소마취시 맥박과 마취력과의 관계에 대한 임상적 고찰 : 김용관”이었다<sup>150)</sup>.

마취학과 국소마취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마취 방법을 설명하였다. 국소마취 효과와 혈압 및 맥박의 변동에 대한 연구와 부작용 shock,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의 예방과 처치에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 국소마취제에 따른 임상적 소견을 보고하였다. 전신마취에 대하여 원리와 방법과 합병증과 환자 관리를 소개하였다.

최면에 대하여 치의학에서의 최면 이론과 증례를 보고하였다.

150) (국소마취학) 52-학-9. 염산프로카인 국소마취 시 맥박과 마취력과의 관계에 대한 임상적 고찰 : 김용관

## 14. 종양학

종양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증례는 “1947년 법랑종의 2증례 : 오재인,<sup>151)</sup>”이었다.

종양학 도입으로 불량 가공치에 인하여 발생한 구강암의 증례와 악성종양환자 보고, 화학요법,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연구를 하며, 치과의사로서 조기발견과 최신지견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구강영역에서의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은 치아종(Odontoma), 백아질종(Cementoma), 법랑아세포종(Ameloblastoma), 치은종(Epulis), 낭종(Cyst), 점액종(Myxoma), 흑색종(Melanoma), 골종(Osteoma), 육종(Granuloma), 섬유종(Fibroma), 혀마종(Ranula), 지방종(Lipoma), 백혈병(Leukemia), 혈관종(Hemangioma), 수암(Noma), 설암(Tongue cancer)과 하순암(Lower lip cancer), 상피암(Epithelioma), 육종(Sarcoma)과 암종(carcinoma), 혼합종 기타 절단신경종, 상순임파선종, 유두종 등을 보고하였다.

## 15. 구강병리학

구강병리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종설은 “1946년 이춘근, 악구강 범위의 급성염증에 관하여,<sup>152)</sup>”이었다.

총론으로 구강병리학의 개념과 전망과 최신경향이 보고되었고, 그 실제로 보철물에 의한 병리조직학적 문제가 제시되었다. 연구 방법으로 세포배양과 생체조직검사(Biopsy)과 동물실험이 보고되었다.

염증의 개론과 치아 감염의 확산이 보고되었으며,

중심감염설로 따른 치아중심감염증의 증례가 보고되었다. 악 및 구강에 발생하는 염증인 구내염, Cellulitis, Stomatitis, phlegmon, 구각미란증(angular cheilosis) 등이 보고되었다.

전신질환으로서 구강내 Lesion을 일으키는 것과 구강질환이 전신에 미치는 질환과 이비인후과 질환, 산부인과적 문제로 임신, 피부 질환, 당뇨병, 순환기 질환, 혈액질환, 결핵, 나병, 안질환, 신경정신질환, 근육 장애, 내분비 장애, 갑상선 기능이상, 영양 부족, Allergic 장애, 각종 Syndromes과의 관계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방사선과 창상치유, 지속적인 외력에 의한 구강상태의 변화가 보고되었다.

구강에 발생하는 색소 병변, 치은 상피병, 치은 상피의 각화, 구개골 변형과 언어장애, 치아 동요의 원인에 대한 임상 및 병리조직학적 관찰이 되었다.

치아의 이상으로 이상교두 결절(Abnormal Cusp Tubercle), 발육부전(Hypoplasia), 기형치(Malformed Tooth), 조기출은, 선천성 치아, Anodontia, 치아위치 이상, 유합치(Fused Teeth), 쌍생치(Geminated Teeth), 과잉치아(Supernumerary Teeth), 거대치(Megalodontia), 정중과잉치(Mesiodens), 반상치(Mottled Teeth), 치수결석(Pulp Stone), 치내치(Dens in dente) 등이 보고되었다.

## 16. 예방치의학

예방치의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종설은 “1946년 이은순, 가정에 대한 아동의 구강위생<sup>153)</sup>”이었다.

치과의사는 보다 넓은 영역과 먼 시야를 갖기 위해

151) (종양) 47-학-15. 법랑종의 2증례 : 오재인

152) (구강병리학) 46-5 : 이춘근, 악구강 범위의 급성염증에 관하여, 조선치계 1 : 1.

153) (예방치의학) 46-6 : 이은순, 가정에 대한 아동의 구강위생, 조선치계 1 : 1.

세계 여러 나라의 치의학의 새로운 경향과 소식을 들었다. 미국, 일본, 서독, 동유럽의 여러 나라와의 교류, 세계보건기구(WHO)와 미8군 치과군의관 모임인 38선치과학회 그리고 국제 치과회의 참가하여 세계 치의학의 흐름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치의학의 새로운 지견을 얻으며 치의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무의촌에서 질병 상태를 보며 구강위생학적인 치과건강관리법을 제시하였다. 구강위생 문답과 구강위생에 관한 연구는 공중보건치과의 개념과 교육으로 예방치 의학을 발전하였다.

구강위생은 가정에서 학교로 영역을 넓혀왔다. 학교보건법안 통과를 보고 학교치과보건사업을 하게 되었다. 구강보건 행사와 업무는 계몽에 초점이 맞춰져 구강보건의 구현되며 구강검사의 이론과 실제가 치과 의사 단체, 치무행정, 국군 치무업무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지역별, 직업별 구강위생에 대하여 조사 보고 하였다.

치아우식증(Dental Caries),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연구는 계속되어, 통계가 작성 보고되었고, 원인에 접근하였다. 치아우식의 원인은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 타액 점도, 타액 내 유산균수에 관한 연구 등으로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치아우식의 예방대책이 제시되었다. 치아우식 예방에 불소가 사용되었고,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예방치 의학의 발전에 타액과 타액선의 연구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타액 내 효소와 무기질량에 관한 우식증 및 치석과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 17. 치과재료학

치과재료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제는 “1947년 애크리릭 수지 치용재의 임상응용에 관하여 : 정보라”이

었다<sup>154)</sup>.

임상에서 치과 기자재에 관심은 치과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하였다. 치아절단 기구의 연구는 고속도 엔진의 합리적 사용법을 연구하게 하였다. 치과용 압인기의 사용에서 원심주조기의 개발은 획기적인 보철술식의 발전을 가져왔다. 치과용 합금에 관한 연구는 많은 사람에게 보철을 가능하게 하였다. 재생능력이 우수한 인상재 Alginate와 Rubber Base와 Acrylic Resin의 치과용 재료의 발달은 불편이 적은 보철물 제작하게 하였다.

Amalgam은 충전에, 석고와 매몰재는 보철 기공에, 시멘트는 합착에, 교정재료는 교정치료에 적용하도록 개발되었다.

## 18. 구강해부학

구강해부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제는 “1948년 인류 치아의 형태학적 및 축학적 고찰 : 송재형”이었다<sup>155)</sup>.

구강과 안면의 해부학은 임상을 위한 해부학으로 발전되었다. 인류학적 연구로 치아의 신장, 안모, 치궁과의 관계가 연구되었고, 치아의 치관, 치근, 법랑질과 상아질 후경, 치아의 배열, 하악 절치절단에 대한 연구가 되었다.

구강에서 크기의 관계로 유치와 영구치의 근원심적 거리, 치은의 후경, 법랑상아경계와 치근분기점간의 거리, 구순과 치아와의 관계, 하악 제1대구치와 중절치의 하악골에 대한 위치적 관계 등이 연구되었다.

하악골에 관한 연구로 하악골, 하악관절, 하악 악제, 치조와의 장경, 폭경, 치밀골과 해면골, 하악각, 악두위치 등이 연구되었다.

치궁과 구개에 관한 연구로 안모와의 관계, 형태와

154) (치과재료학) 47-학-18. 애크리릭 수지 치용재의 임상응용에 관하여 : 정보라

155) (구강해부학) 48-학-10. 인류 치아의 형태학적 및 축학적 고찰 : 송재형

혈액형, 연령적 변화, 교합형, 혼혈아의 치궁, 치아와 상호유사성, 치아와 상악동과의 거리 등이 연구되었다.

타액선으로 이하선, 악하선과 설하선 등에 대한 해부학적인 연구가 되었다.

상악악골의 공(Foramen)의 연구로 안와하공(infraorbital foramen), 하 악 공(foramen mandibulae), 절치공(incisive foramen), 대구개공(Greater Palatine Foramen), 소구개공(Lesser Palatine Foramen), 후상치조공(Posterior Superior Alveolar Foramen), 와(Fossa)의 연구로 익구개와(Pterygopalatine Fossa), 구개소와(Palatine Fovea) 등이 연구되었다.

치과영역에서 근전도 연구와 그 외 대뇌, 하수체와, 구강과 안면에 분포하는 신경의 연구가 되었다.

## 19. 구강발생학

구강발생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제는 “1948년 쌍생아 14예에 있어서 발육상황 및 구강소견을 주로 한 유사성 : 박부영, 김문조”이었다<sup>156)</sup>.

쌍생아의 발육과 안면 및 악골의 발생학적 이상이 보고되었고, 발생학 총론으로 치아의 발생, 발육, 태아의 화골점과 치배 및 악제가 연구되었다.

하악골, 하악치배, 악관절, 상악동, 상악골, 두개, 상악악제, 치소낭 및 치배의 발육에 관한 연구가 되었다. 치아 발육에 따른 치아의 형태학적 연구와 영구치 발육에 관한 X-선학적 연구, 기계적 자극, 치경부 절제, 전치 근단배 이식이 치아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을 하였다.

치궁, 태아에 소화기의 점액선, 설골, 타액선, 협지

방체(Corpus Adiposum Buccae), 갑상선, 안면 동맥의 발육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 20. 구강조직학

구강조직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제는 “1952년 “틴달”현상에 의한 은 입자 함유혈액 및 요의 광전적 연구 : 김영창”이었다<sup>157)</sup>.

구강조직학은 치아 및 치주위조직의 조직화학적 연구로 시작되었고, 기초학으로 최신지견을 보고되었다. 연구는 구성성분, 석회화, PH, 치아경도, 법랑 및 상아질 형성 과정에서 Alkaline phosphatase 등 각종 enzymes이 석회화 대사에 미치는 영향, 유지방과 당단백에 관한 조직화학적 연구, 우식치에서의 enamel lamella의 구조적인 변화, 법랑질 용해도 등이 연구되었다.

구강점막에서 핵 변화, Hormone과 화학제품이 구강점막 세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연구되었다. 치수와 치은에서 M-Nadi Oxidase에 대한 연구와 Electrophoresis에 의한 치수의 은호성 섬유에 관한 연구와 치은 조직에 있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결합조직섬유의 조직학적 관찰 등이 연구되었다.

## 21. 치과약리학

치과약리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제는 “1947년 금속제의 중독 증상이 구강내 여러 기관에 출현함에 대한 실험적 고찰 : 박명진”이었다<sup>158)</sup>.

구강내 기관에 대한 연구로 금, 은, 동, 창연, 아연,

156) (구강발생학) 48-학-28. 쌍생아 14예에 있어서 발육상황 및 구강소견을 주로 한 유사성 : 박부영, 김문조

157) (구강조직학) 52-학-28. “틴달”현상에 의한 은 입자 함유혈액 및 요의 광전적 연구 : 김영창

158) (치과약리학) 47-학-40. 금속제의 중독증상이 구강내 여러 기관에 출현함에 대한 실험적 고찰 : 박명진

철, Aluminum 등이 각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었다. 고추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과 인삼이 니코틴 중독에 대한 저항력이 연구되었다. 총론으로 치과진료에 유용한 약물과 최신지견이 소개되었다.

치과임상에서 염증 치료에 대한 약물로 항생제와 Hormone과 비타민이 소개되었다. 원인균을 박멸하는 페니실린의 치과치료에 응용은 새로운 치료였으나 Penicillin Shock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어서 스트렙토 마이신, Erythromycin과 Pen Duomycin 등의 항생제가 개발되었다. 또한 항히스타민제, 부신피질 Hormone, 화학요법제, 진정제와 진통제의 치과영역에서 임상적 가치가 보고되었다.

약리작용에 관한 연구가 되었다. 혈액 Alcohol농도에 미치는 약물, alkaloids의 혈액응고 촉진, 치아 경조직의 약물침투, 타액의 모세혈관 투과성 향진효과에 미치는 약물, Vitamin과 치아와 구강질환과의 관계 등이었다.

## 22. 구강생리학

구강생리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구는 “1959년 김철, 김창욱, 해마를 떼어버린 백서의 Stress에 대한 반응,”이었다<sup>159)</sup>.

생리학 총론이 소개되었고, 실험동물의 stress에 대한 반응, 갑상선기능, 저작운동, 연하역치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 23. 구강생화학

구강생화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연구는 “1962년

김기영·이동수, 편호상반세포의 생화학적 고찰,”이었다<sup>160)</sup>.

세포의 생화학적 고찰와 치아의 생화학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 24. 구강세균학

구강세균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증례는 “1952년 체강X선에 의한 경안면 방사상 균증의 근접 X선 조사에 의한 1치료 례 : 김용관”이었다<sup>161)</sup>.

악안면 방선균증(Actinomycosis)과 구강내 세균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아메바(amoeba),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원충류(protozoa), Amylase 생산균, 구강양모균증 등이 보고되었다.

## 25. 경영관리학

경영관리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기록은 “1958년 나의 구강진사, 치료계획 및 치료비 계산방법 : 이유경”이었다<sup>162)</sup>.

치의학과 치과의료의 대부분은 치과의사의 개업 즉 임상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하기에 치과의원 경영에서 구강진사와 함께 치료계획 및 치료비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치과의원의 인사관리로 치과환자에 대한 개념, 환자와 최초의 면접과 대화, 환자교육과 관리, 환자의 통계적 고찰을 하여야 하였다.

치과 치료실 실내장식은 진료실 및 대합실을 갖추고

159) (구강생리학) 59-53 : 김 철, 김창욱, 해마를 떼어버린 백서의 Stress에 대한 반응, 논문집 제9집.

160) (구강생화학) 62-35 : 김기영? 이동수, 편호상반세포의 생화학적 고찰, 치과회보 4 : 1.

161) (구강세균학) 52-학-33. 체강X선에 의한 경안면 방사상 균증의 근접 X선 조사에 의한 1치료 례 : 김용관

162) (경영관리학) 58-학-9. 나의 구강진사, 치료계획 및 치료비 계산방법 : 이유경



색채조절까지 고려한 기능적이어야 하였다.

## 26. 치과의사학

치과의사학에서 대표적인 초기 기록은 “1959년 안종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이었다<sup>163)</sup>.

치과의사는 오늘의 사정에 원인이 된 지난 일을 되돌아보기도 하였다. 근대 치의학의 회고는 현대 치의학의 발달 과정과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일이었다.

의사학과 치과의사학의 관계가 기술되었고, 역사 속에서 발굴된 치과의 기록은 치과질환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였다. 서양 치과의사학으로 성서에 나타난 치과 이야기, 뻬에르·포샤르의 생애와 업적과 미국 치의학의 발달이 보고되었다. 동양의 의학 사상과 불교의 의학관이 소개되었고, 중국 의사 이야기, 중국 치과의술의 특이성과 동서의학의 교류가 연구되었다.

한국 치과의학사로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왕조의 치과의학사, 최고의 의서 향약구급방에 관한 치과의사학적 고찰과 우리나라에서의 치통에 관한 의학적 연구가 되었다. 한국 근대치과의학사 발달과정의 고찰로 연혁, 개관, 회고와 반성 등이 이루어졌다. 한국 치과의학사 연표와 연구 자료 모여지고, 연대 구분이 되고, 용어가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IV. 맺음말

치의학의 역사는 치과의사가 어떻게 살아야 왔으며,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 나아갈 것인가를 알아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 광복과 한국전쟁을 치

르면서 한국의 현대 치의학은 환희와 격동으로 시작되었다. 광복과 함께 치과의사는 그 사명을 새롭게 진료 영역을 확장하였다.

현대 치의학 발전 요인은 미국 치의학의 도입과 근진 치의학의 발전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일원화된 학술활동과 치과의사제도와 교육의 후원이었다.

1954년 5월 이후 현대 치의학 발전 요인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들의 미국 등 해외유학이었다. 유학 교수들은 임상과목과 치과교육제도를 미국식으로 개선을 하였다. 유학 교수들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을 기존의 보존과, 구강외과, 보철과 3개과에서 8개의 진료과로 늘렸다. 진료 과목의 분과는 분과학회의 설립을 가져오게 하였다. 1959년 5월 28일 대한치과교정학회 설립을 시작으로, 1959년에 7개의 학회가 생겨, 1959년 10월 30-31일 추계 학술강연회는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 10월 7일 대한치과의사학회가 설립 되는 등 1960년대 9개의 학회가 더 설립되었다. 1961-1970년대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 인력과 학술활동이 증가했다. 1960년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기초 치의학 분야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기초 의학과 임상 치의학에 이르는 종합적인 치의학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모든 부문의 철저한 파괴를 가져왔으나 파괴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1954년 1월 군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국 유학을 도입하였다. 미국의 병원에서 일정한 치의학 과정을 이수하였고, 또한 미8군 병원에 치과의사를 파견하여 치과 과정의 실무수련(On the Job Training)을 받아 선진 치의학 배우게 하였다. 또한 1957년 군에서 치과의사는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고, 1959년 주한미군의 38th Parallel Dental Society와 교류하여 최신 의술을 도입하였다. 전쟁 시에는 진료 내용에

163) (치과의사학) 59-137 : 안종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 최신의학 2 : 2.

(치과의사학) 60-99 : 안종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금석담,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

서 악안면 부상자가 많았고, 치과의사는 치아 및 악골의 기능회복에 정통하였다. 그러므로 치과의사 구강외과 진료 영역을 악안면 성형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고, 1962년 11월 이러한 일에 참가했던 치과의사는 대한악안면성형외과학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전문군의 양성과 획득을 위하여 치과의사의 인턴과 레지던트 교육을 일반화 하였다.

광복 후 치과의사제도와 교육은 치과의사 면허 및 등록위원회를 두었으나,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이었다. 1955년 4월 23일 대한치과의사회 총회 결의에 의해 1955년 5월 9일 대한치과의사회 회장은 문교부와 보건사회부에 치과의사제도와 교육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교수가 부족하고 시설이 불충분 상태에서 1955년 학년 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치의학부 학생을 모집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치과의사는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로 일원화되었다. 1957년 3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치의학부는 폐쇄되었다. 1959년 1월 치과의사 교육에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교육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다. 1964년 치과의사(검정) 시험제도가 폐지되었고, 한지치과의사 면허교부가 각하되었다.

1947년 이후 대한치과의학회 학술강연회와 특별강연과 테이블클리닉은 최신 지식과 기술의 전수의 장으로 현대 치의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1955년 이후 『치학(齒學)』을 중심으로 한 외국문헌의 번역은 현대 치의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58년 이후 국제회의 참가와 1967년 4월 아세아태평양치과회의 개최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시야를 넓히고, 또한 세계의 치과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62년 10월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의 개정으로 대한치과의학회는 해산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합류하여 회의 운영이 일원화되었고, 회의 일원화는 회의 동력을 강화시키었다.

1946-1969년 한국 현대 치의학의 발전 과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논문, 증례, 종설 등의 제목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연제를 분석하였다. 임상과 기초치학을 합하여, 각과를 분류하였다. 구강진단학, 보존학, 근관치료학, 보철학, 금관계속가공의치학, 총의치학, 국소의치학, 소아치과학, 치주병학, 방사선학, 치아교정학, 구강외과학, 국소마취학, 종양학, 구강병리학, 예방치의학, 치과재료학, 구강해부학, 구강발생학, 구강조직학, 치과약리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세균학, 경영관리학, 치과의사학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 참 고 문 헌

1. 『동아일보』, 『朝鮮齒科醫學會雜誌』,
2. 『치대학술지』, 『서울대학교 논문집(의약계)』,
3. 『부산의대학보』, 『대한치과의학회지』,
4.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대한치과의사학회지』,
5. 『대한치과보철학회지』, 『대한치과학회구강외과분과 학회회보』,
6. 『치과기재학회지』, 『대한구강보건학회지』,
7. 『조선치계』, 『치학』,
8. 『한국치과공론』, 『치계』,
9. 『치과계』, 『치원』,
10. 『치의계』, 『치과회보』,
11. 『군진치과』, 『군진의학』,
12. 『종합의학』, 『한국의약』,
13. 『의학다이제스트』, 『최신의학』,
14. 『임상의학』, 『중앙의학』,
15. 『현대의학』,
16.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대한치과의사 협회, 1982.
17.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제2권, 2002.
18. 치의병과, 『대한민국 육군 치의병과 50년사』, 육군 본부, 1999.
19.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20. 金斗鍾, 『韓國醫學史 全』, 探究堂, 1966.
21. 신재의, 『한국근대치의학사』, 참운, 2004.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 참운, 2005.  
『한국치의학사 연구』, 참운, 2005.  
『한국치과기자재의 역사』, 참운, 2012.
22. 윤계찬, 「한국치과의학발달과정의 고찰」 1·2·3, 『치계』 2·9·10·12, 1968.
23. 李萬烈, 金亨錫, 金承台, 趙英烈, 『韓末 西洋醫學 受容史』, 國史編纂委員會, 1989.
24. 이주연, 『한국 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혜안, 2006.
25. 이병태, 『치의학 역사산책』, 도서출판 정상, 2001.
26. 임경빈, 「한국 치의학의 서양식 변화과정에 대한 일찰」, 『대한치과의사학회지』 7, 1986.
27.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28. 최진환, 「한국치과계개관」, 『대한치과의학사연구 회지』 1, 1960.